

제12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 치사

오월의 싱그러운 기운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3000배 철야정진 나눔 결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의 발원을 기쁜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설하셨으며, 내 마음의 복을 일구는 자비의 실천을 통하여 이 땅이 불국정토로 화현되기를 서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뜻은 시대마다의 선지식과 사부대중의 위범망구의 노력에 힘입어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종단이 추진하는 자성과 쇄신 결사 또한 이러한 발로이며 불교중흥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의 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우리의 크고 작은 공동의 과오로 벌어진 잘못을 참회하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온 누리의 생명들이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진실한 참회와 정성의 마음으로 난치병에 신음하는 어린 생명을 온 우주에 충만한 대자비로 감싸 안고, 고통을 함께하며 희망을 나누는 나눔결사의 장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삶의 집착으로 그릇된 마음을 떨치지 않으면 여래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든 내 자신의 아픔은 큰 것 같지만, 남의 아픔은 안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잘 모르지만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이 미혹한 중생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주상보시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나와 남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생명임을 깨닫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씨앗임을 바

로 보고 깨달아 나눔과 복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의 발현이며 대승보살의 수행인 것입니다.

전년도에 40여명의 어린 생명에게 1억원이 넘는 보살행을 실천한 나눔 행사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산하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단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격려를 전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동참하고 계신 마곡사, 동화사, 범어사, 고운사, 선운사, 신륵사와 진관사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성스런 마음으로 정진하는 원력의 공덕이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소중한 수행임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무량한 공덕이 난치병으로 시름하는 어린 생명들과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무루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년 5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